

익산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시내 주요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 추가 설치 등 경로당 · 읍면동 · 보건지소 등 435개소 무더위쉼터 지정 도로 노면 지열감소 · 미세먼지 줄일 수 있도록 살수 실시

익산시가 무더위에 대비, 시내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 25개를 추가 설치, 모두 총 63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늘막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제작 설치된다.

설치된 그늘막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순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태풍 및 강풍 등 기상 변화 시에는 신속하게 그늘막을 접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읍면동, 보건지소

등 43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어르신 및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도 힘을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위치는 행정안전부 안전다짐플 앱,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로 지정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노인돌봄비,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을 활용,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재난도우미는 폭염 특보 시 무더위쉼터 및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등 각종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도로 노면의 지열을 감소시키고, 미



이산총 안전행정국장

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 살수도 실시한다. 노면살수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터미널~무왕로~선화로 등 4개 주요 구간을 정해 살수차 3대를 수시로 운행하여 집중 살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축사에 안개분

무기, 제빙기, 환풍기 등의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근로자들을 잠시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폭염 피해 예방 홍보용 부채와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산총 안전행정국장은 "올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도 시 안내에 따라 폭염 대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불법 주 · 정차 단속 60분 → 30분으로 단축

익산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련 주차 주 · 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주 · 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련 주차 시 60분이었던 유예시간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시는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하며 즉시단속 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인신역 등 교통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교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 · 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불법 주 · 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차량이 주 · 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또는 스마트폰 주 · 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시 종합민원실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비서실장 인선관련 하마평 무성

후보군으로 김장수 · 박효성 · 황의성 · 송민규 씨 등 거론

정현을 익산시장을 보좌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비서실장을 내세워 별채부터 시정에 개인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면서 익산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비서실장 후보로 4~5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제마다 자천타천으로 1등 공신으로 불리며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으로 정현을 시장을 밀어온 인물들이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장수, 박효성, 황의성, 송민규 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정 시장의 오랜 측근인 김장수 전 계장은 정 시장의 정계 입문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서 굵은 도맡아,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 케이스로 정 시장 캠프에 합류한 박효성 전 처장은 기획총괄본부장으로서 준재감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성 이시장은 정 시장 캠프에서 방송토론회 자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외부 인사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송민규 계장이 비서실장 후

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역 정계에서는 비서실장은 시장과 직원들의 가교 역할 및 업무 조정,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등 막중한 역할을 부여 받는다며, 시장과 공동 운영 체인 만큼 정무감각과 충성심을 갖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시장의 정치적 비타입이 되어 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서실장을 내세워 시정에 개인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7월 2일 취임식 후 새로운 비서실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 3번째 임시회 열어

군산시는 지난 23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2018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 제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올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를 1년 동안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어린이의회 의장으로는 박채영 의원(푸른솔초6)이, 부의장으로는 장효빈 의원(서해초6)이 선출됐으며 청소년의회 의장으로는 강민혁 의원(동고2)이, 부의장으로는 송부겸 의원(동원중2)이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군산시는 지난 23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2018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 제3회 임시회'를 열었다.

또한 교육, 복지, 안전 분야의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앞으로 신입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제

안 및 활발한 의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성근 어린이 행복과장은 "어린이 · 청소년 의원들이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의회 발전 및 어린이행복 도시 군산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예술의전당, 6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하우스콘서트' 27일 대공연장에서

군산예술의전당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Viola 에르완 리샤 & Guitar 드니 성호의 하우스 콘서트를 27일 대공연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하우스 콘서트란 공연자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머무나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한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프랑스 바를리스트 에르완 리샤와 한국계 벨기에 출신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무대에 올라 섬세하고 따뜻한 음색을 선보일 예정으로, 비올라와 클래식 기타의 신선한 조합과 악기도 극적도 모두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하모니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는 최근 KBS 인강극장에 출연해 입양된 과정과 음악세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이 방영돼 큰 감동을 이



끌어 낸 예술가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전라북도과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여 전석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관람권은 당일 현장에서 공연 1시간 전(18:30)부터 배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군산시는 실직자 및 가족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 제공을 실질적 지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재

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며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 1세대 2인 참여자 중복 · 반복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고음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월 평균 11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 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

6.13지방선거 익산지역 당선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지역발전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이문용)가 "오는 7월 4일 오후 3시 원광대 송산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익산시장과 도의원 4명, 시의원 25명 등 30명을 한자리에 모시고 익산발전 위한 시민화합 교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시민화합교례회에는 당선자 뿐만 아니라 지역출신 이춘석 · 조배숙 국회의원과 각급 지역 기관관제장 · 상공인 · 시민 등 130여명이 초대됐다.

한편 익산상회는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발수를 보내고 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익산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위해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